

# 광주시청 대형조형물 '기원'...20년만에 이전·철거 검토

### 이탈리아 작가 '알렉산드로 멘디니' 작품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해 설치 "작가 유족과 협의...다음달 최종 결정"

광주시청 앞에 20년동안 세워져 있었던 대형조형물 '기원' 작품의 천 일부가 파손돼 수일째 누워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전 또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원' 작품 일부분의 파손이 확인돼 작품을 높혀 놓고 있으며 오는 6월 까지 '열린청사' 조성 공사를 해야 함에 따라 보수를 하지 않고 이전·철거를 놓고 작가의 유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작품은 지난달 26일께 천으로 구성된 결과면 일부가 강풍에 의해 찢어졌다. 광주시는 수백만원의 들어 부분 보수를 계

획했지만 작품 걸표면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예산이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이전·철거를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기원' 작품은 지난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8억원을 후원받아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 설치됐다. 높이 16.5m, 직경 18m 크기인 작품은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제작했으며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한 7개의 모빌식 원형 조형물 겹을 천으로 감싸 광주 발전과

시민 소망을 담았다. 조형물의 겹모습은 계절별로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2007년까지 매년 4번씩 교체했지만 2008년부터는 1~2번으로 줄었다. 하지만 교체비용도 수천만원이 들고 시청사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파손이 발견될 경우 보수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열린청사 조성 계획에 따라 작품이 이전·철거되면 시민들이 청사 앞 공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열린청사 조성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 따라 작품의 존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며 "현재 작가가 작고한 상태로 가족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 메일을 통해 광주시의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광주시청 잔디광장에 설치돼 있는 대형조형물 '기원(PRAYER)' 작품이 일부 파손돼 수일째 누워있다. 광주시는 철거·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변용일기자



15일 전남 순천시 울촌 제1산단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발표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 순천 한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

### 남해안 우주 거점 신포탄 508억 투입해 내년 완공 순천시 '누리호' 생산 조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8억 원을 투자해 우주발사체 제작·조립을 위한 단조립장과 향후 민간 발사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 완공될 발사체 제작센터는 총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의 각 단을 제작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발사체 조립의 핵심 시설이다. 이는 순천시에 우주산업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앞으로 설립될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청년과 기업 인재들이 들어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인 순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번 센터의 설립을 통해 20만 평 규모의 해룡산단에 연관산업이 유치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착공식의 남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혼자 왔다 둘이 또 오는 꿀잼광산, 맡겨주세요"

### 광산구 '2024년 홍보파트너' 40명 본격 활동...'광산형 구독오피스' 첫 취재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의 다양한 매력과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알릴 '2024년 광산구 홍보파트너'가 본격 활동한다고 밝혔다. 홍보파트너는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광산구의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시민홍보단'이다. 주로 사진, 글을 담당할 소셜 지기단, 영상 홍보를 맡을 크리에이터(장·제작자)로 나누어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명 많은 총 40명(소설지기단 30명, 크리에이터 10명)의 홍보파

터너가 활동해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시민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하다. 첫 활동으로 지난 16일 광산구 지역경제 활력센터와 소촌아트팩토리, '광산형 구독오피스'를 탐방하고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교육도 진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광산구 홍보파트너는 12월 까지 △구 주요 정책 취재 △광산구 축제 및



주요 행사 콘텐츠 제작 △광산구 문화·관광 소개 △광산구 공식 누리소통망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해 홍보파트너의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형택기자

## 전남도, 올해도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드립니다

###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주소득 읍·면·동 복지센터서 접수 100억 규모...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덜어 지역 정착 유도



전남도는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8

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그동안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함께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어로 진흥재단 Korea Promo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비율	2.7배	5.3배	
금액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